장간1주년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전속의 수행법구

닦을수록 빛나는 보배 네게 있으니…



생활을 방편삼아…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불도를 닦는 한편, 그들을 돕고 사는 것은 재가수행의 출발이며 귀결이다. (사진은 봉은사 감로탱에 나타난 시장풍경. 대장간, 엿장수, 빙 둘러앉아 참외를 깎아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덕 베풀고 분노·교만 버려야 깨달음 이뤄

진여의 실상을 보는 지혜

△질문=법계는 한 모습이요, 부처의 체성(體性)에는 둘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 진여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온갖 선행을 닦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대답=비유컨대 대마니보주의 체성(體性)은 본래 청정하지만 흙에서 막 캐어낸 광석에는 더러움이 끼어 있으므로, 설사 사람이 그 보배로써의 본성을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갖가지로 갈고 다듬지 않을 때는 끝내 청정허 지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의 진여법 또한 그 체성은 공적하고 청정하다 해도 끝없는 번뇌의 더러움에 뒤덮여 있는 터이므로, 설사 사람이 진여를 생각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족할 수 없다. 적절한 방법에 의해 갖가지로 닦지 않는다면 역시 청정해지지 않는 것이며, 더러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온갖 것에 두루 미치고 있는 까닭에, 온갖 선행을 닦아 그것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온갖 착햔법을 수행한다면, 저절로 진여법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신론〉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길

온갖 것을 수행하는 사람은 온갖 악을 끊고 온갖 착함을 닦음으로써, 십지(十地)를 뛰어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른다. 〈석마하연론〉

빈틈없는 자세로 닦아라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닦는 까닭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있어서 불퇴전의 온갖 중생이 하나하나 모두 변해 악마가 된다손 쳐도, 그 수행자에게서는 엿볼 틈을 찾아내지 못한다. 〈불모출생경〉

백년제사 잠시 닦음 못미쳐

만약 사람이 백년을 살면서 산림(山林)의 화신(火神)에 제사지낸다 해도, 잠시 동안 몸을 관찰하고 수행을 쌓는 것만 못하다. 〈법집요송경〉

아는것 적어도 먼저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귀히 여기고, 수행하지 않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능히 애써 수행하면, 비록 아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깨달음에 먼저 들어간다. 〈대지도론경〉

대중이 의지하는 '명장'과 같다

비유하자면 백만의 대중이 명장을 믿고 적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출가한 수도승은 마음을 극복하고 뜻을 제어하며, 가르침을 닦고 불도를 받들며, 계율을 따라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은혜를 펴고 덕을 베풀며, 분노·교만·분쟁을 버리고 마음을 오로지하여 수도에 정진함으로써, 명장이 대중을 거느리는 것같이 해야 하다. 〈사지만경〉

아홉가지의 길이 있으니

보살의 수행에는 아홉가지 구별이 있다.

첫째는 생사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병자가 쓴 약을 먹는 것은 병을 고치고자 함일 뿐, 약에 탐심을 내기 때문이 아닌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생사를 가까이함은 오직 그것을 잘 분별해 스스로 격려하기 위함일 뿐, 집착한 까닭은 아니다.

둘째는 중생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훌륭한 의사가 병자에게 친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대비 때문에 번뇌와 병으로 고생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셋째는 제 마음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슬기로운 주인이 아직 법도에 익숙하지 못한 노복을 잘 길들이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제어되지 않은 마음을 잘 제어한다.

넷째는 욕망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상인이 팔기를 잘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보시따위 여러 바라밀의 재물을 늘려간다.

다섯째는 삼업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옷을 잘 빠는 사람은 능히 때를 없앨 수 있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삼업을 닦아 능히 이를 청정하게 만든다.

여섯째는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인자한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사랑하여, 더러워도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중생이 손해를 입혀도 일찌기 성내는 일이 없다.

일곱째는 수습(修習)하는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나무에 구멍을 뚫고 마찰하여,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선법을 수습함에 있어서 일찌기 중단하려는 마음을 지니는 일이 없다. 여덟째는 삼매의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재물을 꾸어주되 보증만 확보되면, 쓰는 사람이 날로 재물을 늘려 주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모든 선정을 닦아 마음이 어지럽거나 어둡지 아니하면 공덕이 늘어난다.

아홉째는 반야에 대한 수행을 잘 행함이다. 비유컨대 환사(幻師)는 허깨비가 진실 아님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보살도 마찬가지니, 알게 되는 대상에 미혹(迷惑)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살의 수행의 차별이라 한다. 〈대승장엄경론〉

이야기로 배부르지 않듯

박학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무식한 것과 같으니, 먹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배부르게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능엄경〉

'나'보다 '남' 구하는 마음을

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구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요, 남을 구하고 자신을 구하는 것이 둘째요, 자신을 구하고 남을 구하지 않는 것이 셋째요, 자신과 남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최하이다.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며 뇌성이 울리는 것 같으니 최상이요, 몸으로 행하되 입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비는 오나 뇌성이 없는 것 같으니 둘째요, 입으로 설하되 몸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뇌성은 들리나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니 셋째요, 입으로도 설하지 않고 몸으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뇌성도 안 들리고 비도 안 오는 것 같으니 최하다. 〈대보적경〉

남이 아닌 나의 약을 지으라

오직 박학만으로는 여래의 가르침에 들어갈 수 없으니,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스스로는 굶주려 먹지 못하는 것 같으며, 남의 약은 잘 지어 주면서도 제 병은 못 고치는 것 같으며, 남의 보물을 세면서도 자신에게는 반 푼어치의 소득도 없는 것 같으며, 왕궁에 태어나 굶주림과 추위를 당하는 것 같으며, 귀머거리가 음악을 연주해서 남을 기쁘게 하지만 자신은 못 듣는 것 같으며, 소경이 여러 형상을 그려 남에게 보이지만 자신은 못 보는 것과 같다. 가르침을 닦지 아니하면 박학도 이와 같을 수 밖에 없다. 〈화엄경〉

자랑거리 아니니 겸손하라

부처님께서 니구타라는 바라문에게 이르셨다.

"네가 비록 수행을 했다 해도, 수행한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하는 생각을 일으켜 남을 업신여기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늘 노여움의 회충과 구더기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어디서나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항상 해태(懈怠)와 열등한 정진(精進)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그 마음을 산란케 하고 모든 감각기관을 타락시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사견이 깊고 두터워 그릇된 도리를 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탐심과 노여움을 늘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온갖 소행이 어리석고 둔하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죄를 즐겨 지으며, 죄 짓는 자를 가까이함으로써 나쁜 친구에게 종속해 굴복하는 바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일어나는 번뇌다. 네 수행은 증상만을 일으키고 얻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지녀, 보지 못하고도 보았다 이르며, 하지 못하고도 했다고 이르며,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이르며, 알지 못하고도 안다고 이르며,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이르고 있으니, 이것이 네 수행을 따라 늘어나는 번뇌다." 〈니구타멈지경〉

정리=차차석 부장

배운것 많아도 수행하지 않으면 '무식'
생각과 행동 한결같아야 '무명' 사라져

종이장수의 깨달음

조선조 중엽, 전남 해남군 소재의 대흥사 산내 암자인 진불암에 낯선 종이장수가 찾아왔다. 배운 것도 제대로 없는 무지랭이 최씨가 생계수단인 종이를 팔러온 것이다.

이방 저방을 기웃거리던 최씨는 누구에게 말 한마디 걸 용기도 없었다. 마침 결제철이라 70여 대중이 모여 조실스님의 결제법어를 듣고 있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어 서성거리던 참에 법어를 하는 조실스님의 풍모에 이끌려 법당 안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엉거주춤 앉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조실스님이 거룩해 보였다. 갑자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진 최씨는 '나도 출가하여 스님이 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다.

최씨는 법회가 끝난 후 조실스님을 찾아뵙고 "스님, 저는 떠돌이 종이장수인데 도를 닦을 수 있겠습니까" "도를 닦는데는 신분도 부귀도 소용이 없네. 누구나 하면 돼" 라는 조실스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머리를 깎고 출가한 예비승려 최행자. 온갖 궂은 일을 마다 않고 열심히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염불 한 마디 외우지 못했다.

대흥사에 종이팔러 왔던 최장수는 수행끝에 눈이 열려 주지스님되고

자신의 우둔함을 탓하며 "종이장수 팔자에…"라 자조하며 조실스님께 하산인사를 하자 스님은 '관타카'의 이야기로 위로하여 주었다. 부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관타카를 위로하며 "내 말을 기억하거나 외우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너는 절의 뜨락을 말끔히 쓸고, 스님들이 탁발에서 돌아오면 발이나 깨끗이 닦아 주거라. 이렇게 매일 쓸고 닦으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 말씀하셨다.

이 '쓸고 닦으라'는 법문을 듣고 관타카가 성불했듯이 수행하라는 조실스님의 법문은 백일 가뭄을 적셔준 단비와 같았다.

최행자는 한국판 관타카가 되리라 결심하고 자나깨나 '쓸고 닦아라'를 외우며 수행하여 훌륭한 구도자가 되었다. 후일 대흥사 13대 주지가 된 범해 각안스님이 '쓸고 닦아라'로 깨달은 종이장수 최씨였기 때문이다. 불후의 저술도 남겼으니 〈동해열전〉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사찰전서 中에서〉

「고속철도경주통과백지화운동」 선언문

우리 불제자들은 지난 10월 3일 발표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시 통과를 확정한 정부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잘못된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이 계획은 기존 확인된 직접 피해 28개 유적지와 간접 피해 수백 점의 민족 문화유산을 목전의 이익에 현혹된 관광산업을 위해 파괴하여도 무방하다는 민족정신상실의 정책이다.

둘째 경주 남산을 비롯한 경주시 일원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10대 유적 도시로 지정되어 이제는 한국인만의 자랑이 아닌 세계의 문화도시이므로 매우 귀중하게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과 세계인의 여망을 저버린 국가적 수치이다.

셋째 경주 남산하에 건립될 역사(驛舍) 등으로 인하여, 1천여년을 내려온 상당수의 불교 유적이 훼손·파괴 될 위험을 간과한 것은 불교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주도하에 빚어질 「성보 훼손」이라는 사상 최대의 법난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1천 2백만 불자들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민의의 수렴을 통해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고 상식적인 행정 아래 재설계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뜻이 달성될 때까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을 비롯한 각 종단 및 소속 사찰과 전국의 주요 신행운동단체와 협력하여 범불교적인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이를 국민과 정당 그리고 정부 앞에 공표 선언하는 바이다.

1995. 10. 12.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상임 추진위원

강건기 전북불교대학 학장
고 은 한국불교 재가회의 공동의장
김두원 전남불교 신도회장
김묘주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
김유혁 천태종 전국신도회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김철회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남지심 우리는 선우 대표
류진수 부산불교 신도회장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 이사장
박윤혼 사단법인 한국불교 대원회 이사장
서돈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안동일 한국불교 재가연합 공동 의장
윤청광 맑고 향기롭게 운동 본부장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이상번 대한불교 청년회장
조호정 삼보법회장
한상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이상 가나다순〉

알 림

1.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범 국민적인 백지화운동을 추진키 위해 일반 단체 및 불교 단체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추진 성금과 자원 봉사활동을 접수받습니다.

연락처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한국불교 재가회의 사무국
전화 : 277-2676 FAX: 278-9118
은행지로번호 5070187(시중 각 은행 및 농협, 축협, 수협)
우체국: 010231-0028977-12 (김형균)

2. 본 운동의 범국민적 실천을 위한 결단식이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마포 불교방송 3층에서 거행됩니다. 참가 단체는 물론 개인의 동참을 기다립니다.